애끓는 실종 선원 가족들 “하루빨리 돌아오길”

새벽 수습된 기관장 소식에 ‘숙연’ 가족들, 해경 선체 인양 작업 동의 사고 해역 찾아 수중수색 지켜봐 경찰 “인양 후 선내 수색 이어갈 것”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 사흘째인 6일 실종자 선원 가족들이 목포해경전용부두에서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는 배에 탑승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모두 최대한 빨리 찾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6일 오전 8시께 방문한 목포 산정동. 바닷가에 있는 대기소에서 기다리던 ‘청보호’ 실종자 가족의 한숨이 짙어졌다.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애타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이날 대기소를 방문한 실종자 가족은 4가구(5명)였다.

오전에 실종자 중 1명인 기관장 김모(64)씨의 수습 소식을 전해 들은 가족 A씨는 “오전 5시께 연락을 받았고, 2시간 이후 신원을 전달 받았다”며 “기관장님의 가족분들은 일찌감치 비보를 듣고 떠났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목포해양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과 계획을 전달했다. 가족들은 ‘선체 내부에서 실종된 선원이 발견됐기 때문에 배를 인양해 내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을 해경으로부터 들었다. 인양 작업 시 선체 안팎에 위치한 실종자들이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실 방지망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전달받았다. 이에 가족들은 모두 인양 작업에 동의했다.

실종된 선장 이모(50)씨의 처남인 B씨는 “인양 작업을 위해 체인을 연결했고 배를 물이 얕은 지대로 끌고와서 선체를 수색하겠다고 들었다”며 “(실종된 사람들이) 선체 내부에라도 다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열흘 정도의 수색 기간을 잡고있다는 것과 인양 계획에 가족들 모두 동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이어 “생존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가족들 모두가 하루빨리 (실종자 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A와 B씨를 포함한 실종자 가족 6명은 목포해경과 함께 사고 지점으로 가 인양 작업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 일동은 배에 올라타기 전 해경의 안내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 올라탔다.

실종자 가족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담요를 들고 배에 오르자 해경 함정이 사고 지점을 향해 출항했다. 1시간 10여분에 걸쳐 도착한 신안군 대비치도 서쪽 해상에서는 매서운 날씨 속에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이 한창이었다.

구조당국은 예인선과 크레인선을 전복된 청보호에 바짝 붙여 연결하고 있었다. 청보호 주변으로는 군함들이 원형으로 진을 치고 있었으며, 해경경비함정들이 청보호 주변을 돌면서 잠수작업을 펼치는 대원들을 돕고있었다.

인양 작업은 해상 여건에 따라 얼마나 소요될지 미지수인 실정이다. 해경은 크레인을 연결해 선체를 수면 위로 올린 후 내부 수색을 할지, 육지로 청보호를 끌고 올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2차 브리핑에서 “조석관련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은 때)임을 감안하여 해상여건으로 인양 불가 시, 임자도 남쪽 안전지대로 이동해 인양작업과 선내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 해역의 기상상황은 동풍 4~6㎧, 파고 0.5m, 시정(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3마일이다.

한편 인천선적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는 지난 4일 오후 11시19분께 신안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침수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으며 이중 5명은 사망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청보호’ 기관실 침수 여전히 미궁

기관실 ‘파공’… 확인되지 않아 “합동감식으로 사고 원인 밝힐 것”

신안 임자도 해역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사고가 발생한지 3일째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의심되는 파도의 경우 사고 당시 주변 바다의 파도 높이는 0.5~1m로 비교적 낮았다. 바람도 초속 1m 안팎의 북서풍이 불어 풍랑은 거세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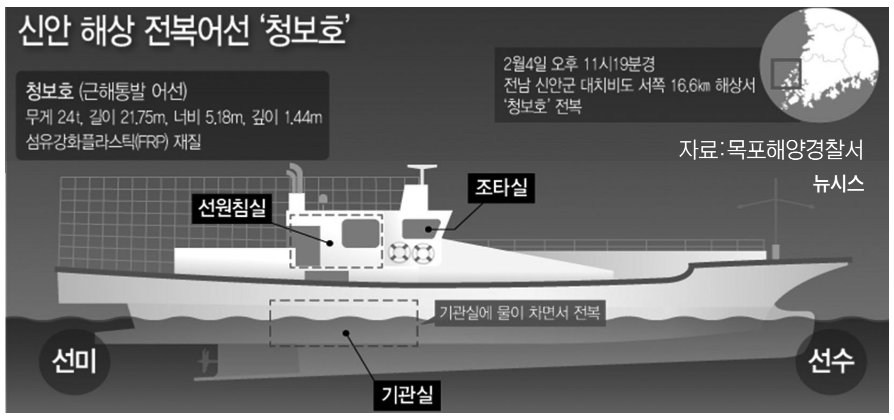
더욱이 청보호는 지난해 3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건조된 어선으로 바다로 나간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형 어선’인만큼 선체 노후화에 따른 누수 가능성도 크지 않다.

여기에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면서 전복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선체에 구멍이 생긴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6일 오전 목포해양경찰은 2차 브리핑을 열어 사고 원인에 대해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관실부터 침수가 시작됐다는 생존선원들의 증언으로 기관실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해경은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생존 선원 A씨는 구조 당국에 “기관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선원이 ‘방(선실)까지 물이 찼다’며 가장 먼저 발견했다. 이후 2~3명이 기관실에 찬 물을 퍼냈으나 10분도 안 되는 사이 급격히 선체가 기울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바닷물이 유입될 만한



구멍(파공), 균열 여부 등 선체 파손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른 생존 선원들도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는 발견 못했고 당시 상황에서는 알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남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기관실 파공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파공을 추정할만한 충돌음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선체 수색 과정에서도 구멍이 뚫린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전날 생존자들이 출항 당시 ‘배가 기울었다’는 증언이나 구명뗏목 미작동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과장은 “생존자들의 ‘배가 5도 정도 기울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나왔지만 다량의 통발이 실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쏠려 배가 살짝 기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구명뗏목이 수압에 의해 팽창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고 일축했다.

해경은 모든 실종자를 수습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침수 원인부터 내부 결함 여부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서 과장은 “선체 내에 있던 4대의 CCTV 등을 통해 인양 후 합동 감식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보호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19분께 신안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전복됐다. 청보호는 인천선적 24톤급 통발어선으로 지난해 4월25일 등록된 신형 배로, 단순 수리 외에 결함이나 사고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인 기자

채권 신고 공고

당 회사는 2023년 1월 16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 2. 7.

회 사 명 : 주식회사 예스코스메틱
주 소 :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89번길 59, 201호(신창동)
청 산 인 : 최영환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사건번호 2023느단6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강순임(450409-2******)
최후주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87, 1005호(해주하이츠아파트)

위 망 강순임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2월 7일

공 고 인 : 오은종
한정승인 수리일 : 2023년 2월 1일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3. 6.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 역	고흥, 담양, 보성
인 원	각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 · · · · · · · · · · · · 1부
-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1부
- 자기소개서 · · · · · · · · · · · · · · · · ·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 수 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 + 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